7년째 달마다 '소쩍새' 돌보기

신행현장 제천 불교어머니회

14일 오전 10시. 강원도 원주 치악산 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정신·지체 장애인의 보금자리인 소쩍새 마을. 소형 미니봉고 한 대가 운동장에 들어서자 원생들이 달려나온다. "엄마 왜 이제 왔어? 엄마 오늘 점심은 뭐 해줄꺼야" 여러명의 원생들이 차에서 내리는 15명의 보살들의 손을 잡으며 안긴다. "엄마도 많이 기다렸어" 보살들은 저마다 아이들을 안아주며 인사를 나눈다.

이들은 제천 불교어머니회 회원들. 지난 95년부터 매달 한차례씩 소쩍새 마을을 방문해 원생 목욕, 빨래, 공양준비, 주변 청소 등 궂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다.

30대에서 80대까지 제천지역에 거주하는 어머니들로 구성된 '제천 불교어머니회'는 그저 내가족, 내자식만을 위해 복을 구하는 기복신앙 생활만을 할 것이 아니라 경전공부도 하고 큰스님을 초청해 법문을 들으며 신심을 키우자는 취지로 창립됐다. 1981년 10여명으로 시작된 어머니회는 현재 소속 회원이 400여명이 넘는다. 그동안 회원들의 가정이나 가계에서 멸치, 김, 국수 등을 팔아 제천 시내에 자체 법당까지 가지고 있는 전통깊은 신행단체로 성장했다.

특히 어머니회 내에 합창단과 사물놀이패를 운영하고 있고 법당도 순번을 정해 매일 사시공양을 올리는 등 신심이 대단하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후원에서 일하는 보살들의 손놀림이 바빠졌다. 오늘 점심은 미역국에 반찬은 오이절임, 깻잎, 김 등. 저마다 일손을 분담해 210여명 원생들의 점심을 정성껏 준비하고 있다.

원생들이 점심공양을 끝낸 이후에야 어머니회원들은 저마다 아침에 싸온 도시락을 꺼내 공양을 한다. 어머니회 회원들은 그동안 소쩍새 마을에 폐를 끼치지 않겠다며 매번

회원 4백여명 공부-봉사 둘다 열심

봄·가을 성지순례 사물놀이패도 운영

봉사 때마다 도시락을 싸와 공양을 하고 있다. 아침에 바빠서 도시락을 못 싸 가져온 장법기행(67) 보살이 컵라면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본 한 후원보살은 "밥도 많은데 왜 컵라면을 먹고 그래요"라며 투박을 주지만 장보살은 연신 웃기만 한다.

공양을 마친 보살들은 잠시도 쉬지 않고 원생들이 먹을 김을 굽는다. 반선의화(66), 장인혜심(46), 김법화성(48) 보살 등 대 여섯명의 보살들은 일렬로 서서 자동차공장 조립라인처럼 김을 굽고 먹기 좋게 잘라 반찬 통에 차곡차곡 담는다. 이들이 굽고 있는 김은 전 원생들이 일주일정도 먹을 수 있는 분량. 환갑이후의 삶은 내세를 위해 사는 것이라는 최고령 박법보화(77)보살도 원생들이 김을 맛있게 먹는 모습이 떠올라 더욱 정성을 기울인다.

◇소쩍새마을 후원에서 파, 마늘 다듬기를 하고 있는 제천 불교어머니회원들.

한켠에서는 당뇨와 관절염으로 치료중인 현본각행(66)보살과 지난해 김장봉사에 참가했다 혈압이 올라 실신한 경험이 있는 서여래심(68)보살은 아픈 몸에도 불구하고 파를 썰며 "아직까지 남을 도울 수 있어 좋다"며 파의 매운 향에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린다.

반찬준비를 끝내고 허리를 펴며 활짝 웃는 어머니회 보살들의 얼굴에서 부처님의 잔잔한 미소를 느낄 수 있다.

젊은 보살을 보면 20년 전 처음 어머니회를 결성할 때가 생각난다는 회장 정보런화(67)보살은 "어머니회 회원들은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남을 위해 봉사하며 불법을 알릴 것"이라며 " IMF이후 후원이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쩍새 마을에 더 많은 불자들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며, 경제적 여건이 허락한다면 자체 회관을 건립하고 싶다는 서원도 세워놓고 있다"고 말했다.

제천 불교어머니회는 봉사활동 이외에도 제천지역의 독거어르신, 백혈병 환자, 소년소녀 가장 등 불우이웃돕기에는 누구보다도 앞장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다. 또한 매주 첫째주 화요일마다 법당에서 큰스님 초청법회를 봉행하고, 봄·가을 성지순례를 통해 회원들의 신심을 키우고 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생활속의 불교

황소걸음이 천리 간다

어떤 사람이 봄을 찾아 산과 들을 헤매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 마당에 매화가 피어 있더라고 했다. 불법도 그렇다. 먼 곳에 있는게 아니라 바로 내 생활 속에 있다.

물 한모금 마시는데, 밥 한 술 떠넣는데에 불법이 있다. 일하고 움직이는 거기에 불법이 있다. 말하고 생각하는 자리에, 손 뻗고 발 걸음 떼어 놓는 데에 불법이 있다.

불법은 법당에만 있는게 아니라 안방에도 있고 부엌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다. 밥 짓는 일, 청소하는 일, 설겆이 하는일, 아이 돌보는 일에도 불법이 있다. 물건을 만드는 일, 농사 일에도 불법이 있다.

스님들의 살림에만 불법이 있는 게 아니라 중생들의 살림살이 구석구석에도 불법이 있다. 고로 사찰만이 도량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도량이 되고, 내가 딛고 선 어떤 곳이든 그대로 여래의 집이 된다. 불법은 현실의 법이요 생활의 법인 것이다.

따라서 불법 공부란 경전이나 예불을 통해서만 가능한 게 아니라 언제 어느 곳에서나 가능하다. 법당에 가야만 공부가 되는 게 아니고 산 속으로 들어가 틀고 앉아야만 공부가 되는게 아니다.

공부는 지하철 속에서도 되고 저잣거리에서도 된다. 거기서 되지 않으면 산에 가서도 되지 않고 법당에 가서도 되지 않는다.

주부들의 밥 짓고 빨래하는 일에도 도가 있다. 더불어 먹고 더불어 사는 공양의 도리가 있을 수 있고 더럽혀진 마음을 깨끗이 세탁하는 도리가 있을 수 있다. 설겆이를 하면서는 마음 비우는 도리를 염할 수 있을 것이고 청소를 하면서는 청정한 마음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불법공부야 말로 세수하다가 코 만지기만큼 쉽다는 비유도 있다.

불법은 생활의 법이다. 평생 살아가는 동안 그냥 생활처럼 하면 된다. 필요한 게 있다면 가르침에 대한 믿음과 그 가르침을 생활속에서 그대로 실천해 보겠다는 의지뿐이다. 믿음과 의지를 밑천삼아 뚜벅뚜벅 황소처럼 걸어가면 된다.

황소걸음이 천리를 간다. ▩龍眼

주계가 있는 법문

"마음가짐 어떠냐 따라 염불공덕 차이 많아요"

대혜스님
구미 원각사 주지

완연한 봄입니다. 봄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활력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겨우내 쌓였던 집안 구석구석의 먼지도 털어내는 등 봄맞이 청소를 하기 마련이지요. 하지만 마음에 찌든 때는 씻어내려 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신행하는 불자들은 이러한 때 마음의 청소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편의 하나로 염불을 권하고 싶습니다.

염불이란 일반적으로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서 불보살님의 가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보살행을 통해서 부처님과 같이 되겠다는 간절함이 더욱 중요합니다. 결국 부르는 대상을 통해서 원력을 세워서 그와 같이되는 것입니다. 아장아장 걷던 갓난아기가 어른이 돼서는 마음대로 걷듯이 염불은 부자유한 중생이 업장을 하나씩 녹여 자유자재한 부처님과 같이 되고자하는 수행법입니다.

일하면서 염불하고 쉬면서도 염불하고

봄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산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산을 오르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생각을 하기보다는 마음을 비우고 그 비운 마음에 부처님을 담는 염불을 한다면 어떨까요. 마음 속의 짐도 떨쳐버리고 지겨움도 힘듬도 없이 편안하게 산에 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산을 오르면 정상이 비록 가깝게 보일지라도 몸과 마음의 번뇌로 인하여 오르기에 힘겨울 것입니다.

염불은 입으로 읊조리는 것보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느냐에 따라 공덕도 차이가 있습니다. 염불의 공덕에는 열 가지가 있습니다. 수면이 없어지고, 천마(天魔)·불법을 방해하는 자가 두려워하며, 염불소리가 주위에 퍼지고, 삼악도의 고통이 쉬며, 잡다한 소리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염불하는 마음이 흐려지지 않고, 용맹스러운 정진심이 나며, 제불이 환희하시고, 정토에 왕생하게 됩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부처님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지름길이란 점입니다.

네팔에는 티베트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네팔을 여행하면서 가장 인상깊었던 것은 티베트인들이 염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염불은 참으로 끊이 없었습니다. 우연하게 50대로 보이는 티베트 불자 3명과 함께 버스를 타게 되었는데, 타자마자 목에 걸고 다니던 염주를 들고 염불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 생각에는 조금하다 말겠지 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한 오전 8시부터 점심 먹는 시간을 포함해 오후 5시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 무려 9시간동안 염불을 계속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염불은 정해진 시간이 없었습니다. 염불이 곧 일상생활인 것입니다.

우리 불자들도 염불을 합니다. 하지만 티베트에서 만난 사람들과는 염불에 대한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염불을 복을 비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크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염불을 간절함없이 하거나, 조금하고서 큰 복을 바라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을 빌기보다는 부처님 법을 따르겠다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간절함없이 염불을 하는 불자들이 있다면 이 기회를 통해 염불 수행관을 바꿔 보십시오. 그리고 염불을 법당이나 특정한 장소에서만 하는 것이란 생각도 봄맞이 대청소 하듯 깨끗이 털어버리세요. 일하면서 음식 만들며 등산하면서도 염불을 하십시오.

신행 캘린더

3월 21일 (수)

■조계종 중앙종회 세미나=조계종 중앙종회 총무분과위원회는 오후 2시 총무원 청사 1층 회의실에서 중앙종회 운영 및 기능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02)735-5860

■LMB 싱어즈 정기공연=LMB 싱어즈는 오후 1시 육군사관학교 법당에서 정기연주회를 갖는다.(011)9059-1737

■시흥시청 불자회 정기법회=시흥시청불자회는 오후 6시 30분 법륭사에서 정기법회를 봉행한다.(031)310-2023 김정규

3월 22일 (목)

■지안스님 대승기신론 강설법회=한국불교교육원 부산구도회는 오후 7시 법당에서 통도사 지안스님을 초청해 대승기신론 강설법회를 봉행한다.(051)462-5062

■능인선원 성지순례=능인선원은 전남 장흥 보림사와 화순 쌍봉사로 성지순례를 떠난다. 출발은 오전 5시 30분 능인선원.(02)577-5800

3월 23일 (금)

■금강정진회=부산 금강정진회는 여수 향일암으로 성지순례를 떠난다. 출발은 오전 6시 30분 부산역 앞. (051)632-0383

3월 24일 (토)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임원순례법회=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는 25일까지 1박 2일간 경주 불국사로 임원순례법회를 떠난다. 출발은 서초동 구민회관 오후 2시 30분.(011)746-8078 정효순

■보살수계 및 진신사리 친견법회=충북 괴산 흥천사는 오전 10시 대웅전에서 보살수계 및 진신사리 친견법회를 봉행한다. 회향은 25일 오전 10시.(043)833-6440

3월 25일 (일)

■지장경 고승 49분 대법회 및 49일 지장천도 기도=삼보사는 5월 12일까지 삼천불전에서 지장경 고승 49분 대법회 및 49일 지장천도 기도를 봉행한다.(02)352-6406

3월 27일 (화)

■팔만대장경 정대불사=조계사는 29일까지 팔만대장경 정대불사를 봉행한다.(02)732-2115

■성동구청 바라밀회 사찰순례법회=성동구청 바라밀회는 오후 6시 옥수동 미타사 정수암으로 사찰순례법회를 떠난다. (02)2290-7355~8 김형권

中央僧伽大學校金浦學舍 法堂三千佛奉安佛事를 爲한

高僧大德 및 重鎭作家禪書畵展

祝中央僧伽大學校金浦學
舍法堂三千佛奉安佛事高
僧大德重鎭作家禪書畵展

辛巳新春 金井山人 菩眼

귀의삼보하옵고
중앙승가대학교가 역사적인 김포학사 시대를
맞이 하였습니다. 종단도제양성에 한 획을 긋는
중차대한 시점에서 학인스님들이 정진하고 조석으로
예불을 드릴 본관 대강당과 비구, 비구니 수행관 법당에
삼천불 원불 모시기를 서원하였습니다. 부디 청년여래를
북돋우시고 대복전을 지으시어 대작불사를 원만히
회향하게 인연공덕을 베풀어 주시기를 발원합니다.

大韓佛敎曹溪宗 總務院長 正大
中央僧伽大學校 理事長
中央僧伽大學校 總長 宗梵
中央僧伽大學校 總同門會長 圓行 合掌

◐ 초대일시 : 2001년 3월 28일 (水) 오후 3시 ~
◐ 전시기간 : 2001년 3월 28일 (水) ~ 4월 3일 (水)
◐ 장 소 : 공평아트 센터 (종로구 공평동)
◐ 문의전화 : 02)733-9512~4, 02)922-7881

主催 中央僧伽大學校 · 主管 中央僧伽大學校總同門會

후원 :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호계원, 중앙종회, 25교구본사주지회의, 전국비구니회, 중앙신도회, 조계사, 도선사, 봉은사, 영화사, 능인선원, 보문사, 영주암, 사자암, 개운사, 불교방송, 불교TV, 불교신문, 법보신문, 현대불교신문, 대한불교신문, 주간불교신문, 승가대신문, 중앙승가대학교총학생회